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40	다 같 이
기 도	Prayer	정순영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26:1-13	인 도 자
설 교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95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이현미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금)
수요성경공부	매수오후 7시 (예정)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1월 25일 제69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사울이 군사 3천을 다윗을 잡으러 광야를 헤매다 십황무지 한 곳에 진을 치고 밤이 이르러 사울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그 틈을 이용해 사울의 자는 천막까지 다가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장수가 무장을 하고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왔지만 사울은 아무런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동행하였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보기에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로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용서하고 살려주었지만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 찾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사울을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다윗의 왕권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호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아니면 사울을 한 번 용서한 다윗이 또 다시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가 보기위한 시험입니까?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용하고 적용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보다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기회를 적절히 이용 할 줄 아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더라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원칙주의여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핍박과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이 주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원칙과 진리를 붙잡는 믿음만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언젠가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였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오히려 사울을 용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물병과 사울의 창만 가지고 사울의 침상을 떠났습니다. 원수를 단칼로 죽이려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호의 복수의 기회이자 성공의 기회라고 여겼던 그 순간을 용서의 기회로 삼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회의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성공이 곧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 성공이 항상 하나님의 성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교회의 성공이 항상 하나님의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공은 결국 내 성공이 되고 성도의 성공이 되고 교회의 성공이 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2. **식탁교제 후 각 사역 책임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 예배 후 사역보고 및 월례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사역별로 준비해주시고 사역보고를 홈페이지 사역보고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에 가정별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식탁교제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 **심방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210.00	
감사헌금:	$1,645.00	
주일헌금:	$10.00	
특별헌금:	$0.00	**합 계: $1,865.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